500호 발간 앞둔 월간 〈연꽃〉

(사)동련, 오는 6월 기념행사… 전국구 연꽃문화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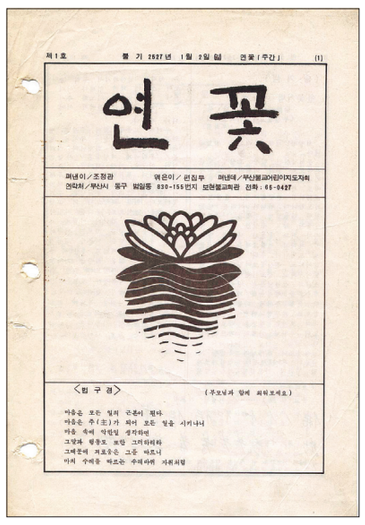
1983년 1월 소책자로 첫 발간
어린이 법회 가이드북 활용돼
300여 전국사찰 · 해외 배송도
"웹진 · 모바일 매체 변화 고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강조와 논쟁만 있을 뿐 어느 누구 하나 진득하게 실천하고 이끄는 이가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 1983년 1월부터 꾸준하게 어린이법회를 위한 문서 포교를 이어오고, 수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곳이 있다.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가져본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이다.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대변하듯 오랜 기간 어린이와 함께한 어린이 전문 포교지 월간 〈연꽃〉이 500회를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사단법인 동련은 〈연꽃〉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대중이 함께 동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서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월간 〈연꽃〉은 1983년 1월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가 발족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법회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됐다. 처음에는 짧은 식순과 사찰 어린이 회명이 소개된 작은 책자였지만 100호를 발간할 때쯤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관심을 보이며 제작 요청이 들어왔고, 점차 발전했다. 이후 16페이지로 확장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사단법인 동련은 〈연꽃〉뿐 아니라 연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지침서 〈동련〉도 배포해 활용도를 높였고, 교사들의 역량 키우기에도 앞장섰다. 현재 〈연꽃〉은 후원으로 제작돼 불교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해외 14개 어린이 법회, 전국 300여 어린이 법회에 보급되고 있다.


사단법인 동련이 1983년 최초로 발간한 어린이 포교지 월간 〈연꽃〉.

최미선 사무국장은 "그동안 연꽃 어린이 기자단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위해 활동했는데 예산 문제에서 항상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다"며 "관련 책자를 여러 가지로 내긴 했지만 지금은 〈연꽃〉지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사 지침서인 〈동련〉은 파일과 CD 등에 담아 요청하는 곳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덕분에 유지가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익보다는 어린이 포교에 마음을 내어 함께 해준 대안기획 사장님과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월간 〈연꽃〉은 표지부터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연꽃문화제에 참가한 아이들의 그림을 담아 친근함을 더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귀의와 사홍서원, 반야심경, 오계를 담은 첫 페이지와 감사하는 마음을 글어 낼 수 있는 감사장, 동화, 찬불가, 경전 퀴즈 등이 담긴다. 아울러 교사 연수 및 어린이 포교와 관련된 각종 행사 소식도 담아 사찰 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미선 국장은 이 같은 구성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최 국장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 학년별로 더 다양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고 싶다. 또 기자단들이 활동하는 어린이 참여 코너를 더 늘리고 싶지만 예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웹진이나 모바일 이북(E-book)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동련은 올해 '제36회 전국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연꽃〉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열리는 문화제는 어린이들의 전국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연꽃문화제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이며 참가 부문은 글짓기와 그리기로 나뉜다. 주제는 '행복한 시간'과 '친구'이다. 문화제 일정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경남지역은 4월 11일 김해 동림선원에서 열리며, 서울 · 경기는 4월 12일 의왕 청계사, 부산지역은 4월 18일 부산시민공원, 대구는 4월 30일 덕암사 일원이다. 울산지역은 4월 30일 정토사에서 개최되며, 밀양은 5월 2일 용궁사, 광주 · 전남은 5월 9일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공모전은 5월 30일이며 동련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하지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무국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최미선 사무국장은 "현재 계획에 맞춰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행사를 마련하려 했지만 혹시라도 일정이 안 된다면 별도의 행사를 준비해 일정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51)864-4570

비상근무 전 · 의경 컵라면 격려

태고종 진성 스님, 완산경찰서에 100상자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를 방문해 컵라면 100상자(1600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 스님은 2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최원석)를 방문해 연속되는 비상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 의경들의 부식으로 컵라면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사진〉

진성 스님은 "최근 전북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 · 의경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석 서장은 "스님의 방문으로 전 · 의경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산 탑사 신도회 나누우리 봉사단장 윤복길 회장, 천순희 탑밴드 봉사단장, 정종규 전주 다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의 쌀로 전한 따뜻한 情

제주 반야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쌀 기탁



제주 반야사(주지 수상)는 2월 26일 경내에서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비의 쌀 1105kg을 기탁했다.〈사진〉 쌀은 동지기도와 정초기도, 보름기도 등을 거치며 반야사 불자들이 불단에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반야사는 올해로 12년째 자비의 쌀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반야사가 기탁한 쌀은 애월읍사무소와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제주도노인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반야사 주지 수상 스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반야사 대중의 뜻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삼존불 개금불사, 공덕 쌓아요"

부산 동명불원, 9월 점안 예정
향후 유형문화재 등록도 추진

동명불원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가 시작된다. 사진은 동명불원 삼존불.

부산 남구에 위치한 동명불원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가 시작된다. 동명불원 삼존불은 목불좌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동명불원(주지 승찬)은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시작하는 공고를 내고 3월 중 입찰을 받는다. 동명불원 삼존불은 1977년 봉안됐으며 20년 전 처음으로 개금불사가 진행됐다. 이후 목불의 특성상 세월에 따른 균열이 일어났고, 개금된 부분이 떨어져 새 불사를 진행하기로 결의 했다.

동명불원 재단은 개금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개 입찰로 불사 담당자를 선정하고, 4월 부처님오신날 이후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사 기간은 4개월가량을 예상하며, 9월 가을에 점안식이 봉행될 전망이다. 개금불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개금불사 후 불교유형문화재로 등록해 불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동명불원은 故강석진 동명목재 회장이 국가번영과 부모의 왕생극락을 빌고 동명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근로자를 위해 건립했다. 대웅전 내 삼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미륵보살, 오른편에 제화갈라보살을 모셨고, 목조좌불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6m이다.

주지 승찬 스님은 "개금불사는 진리의 옷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의식이자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공양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가운데 개금하는 공덕보다 나은 공덕은 없다"며 "삼존불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 모연에 동참해 세세생생 복전이 될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시기를 발원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051)626-433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응공조계종, 지역사회에 생필품 기탁

칠곡 약목면에 라면 100박스 · 생활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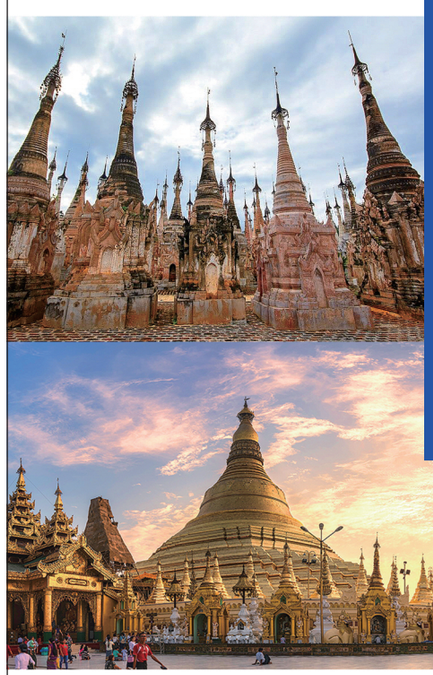


사단법인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2월 20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에 라면 100박스와 생활용품 등을 기탁했다.〈사진〉 응공조계종이 기탁한 물품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경담 스님, 지암 스님, 경봉 스님, 해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법운 스님은 "작은 일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흉한 날이 된다"며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신구의 삼업을 버리고 또 버려 청정한 마음으로 모두가 경자년을 보냈으면 한다. 응공조계종도 전 종도들에게 맑은 마음을 갖도록 당부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기2564년을 맞이하여 미얀마관광청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완벽순례(6일)
부산출발-베트남/타이항공
특급호텔 148만원
출발일 5월~6월 2달한정!
접수기간: 4월30일까지
호텔:양곤 세도나/바간 헤리티지/만달레이 힐튼/헤호 프리스틴

마하연 주요일정
양곤-까바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황금대탑 쉐다곤
바간-치아사리가 모셔진 쉐지곤/아난다 파고다
만달레이-마하무니 파고다/미얀마 불교 중심지 사가잉
헤호-고대 스투파 군락지 까꾸/팡도우 파고다

* 인천출발(대한항공)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인도/스리랑카 및 타 지역 단체 문의 환영



21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933호
www.mahayeon.com
문의전화 02-365-7747